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6월 13일(토)
청년 알파 수료식

6월 16일(화)
성인 알파 수료식

6월 18일(목)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 자유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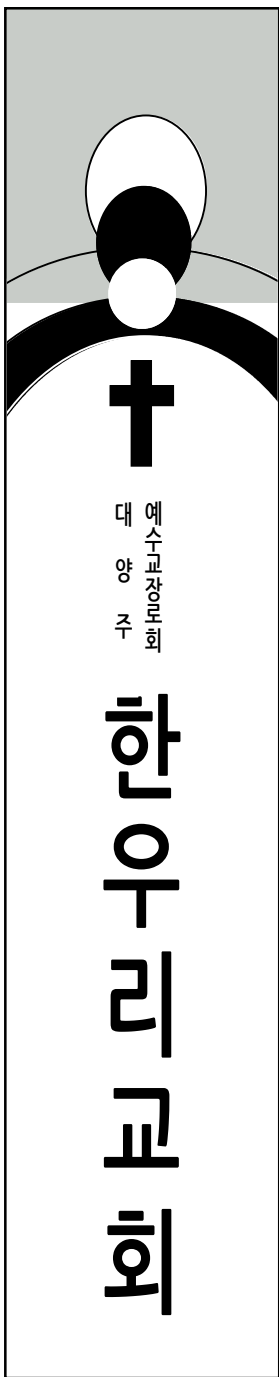
6월 21일(주일)
정기제직회

6월 28일(주일)
성찬주일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이요한 2부/이성민 3부/안현수 4부/김수경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 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 봉헌 및 1부/ 신규식 장로 2부/ 고현숙 권사 3부/ 채금희 권사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창 3:5-10 사 회 자
- 찬 양 2부: 완전한 사랑 시온찬양대
3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선악과 안현수 목사
- 찬 양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 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조 준 영
대표기도
- 찬 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가브리엘찬양대
- 말 씬 고전 10:1-13 [그래도 교회 6] 김진영 목사
반복되는 넘어짐, 그래도 교회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조길령 권사 2부/ 권정호 장로 3부/ 조기동 장로 4부/ 안제경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말씀: 막 3:13-19

제목: 믿음의 도상(道上)에서, 제자들 편

기도: 이정석 집사 (다음 주: 이광일 집사)

설교: 이성민 목사

교회소식

교회알림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일 2부(10시) 예배시 조이홀 이용은
영,유아와 함께 한 부모님들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주일(6월 7일)에는 바누아투
단기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10명의 단기선교팀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도네이션: ASB 12-3109-0139907-00
(Han-ou-riPresbyterianchurch) Code: 53
4. 2026년 한우리반 제5기 수료를 축하합니다
김성옥, 김재희, 박진선, 조영돈
5. 우리 교회가 국내외 총회들과 협력하여
미래 목회 및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준비하는 '미래목회 솔루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사 내용: 현재 교회 현실 진단 및 미래
목회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
참여 대상: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
참여 방법: QR Code를 스캔 후
온라인 설문 참여
6. 교역자 동정;
남우택 담임목사는 대양주 총회 참석차
출타합니다.



교육부서

- 교육위원회: 7월 12일(주일) 1시 30분

전도부

- 상반기 거리전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거리전도는 9월 첫주(6일)에 재개합니다.

바누아투 단기선교 물품 도네이션 모집

- 바누아투 단기선교: 7월 2일-12일
- 부시 어린이 200여명의 연합 캠프용으로,
캠프 마지막 날에 달란트 시장에 쓸
물건들이며, 부시 선교사들이 산에 올라갈
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 도네이션 물품들은 친교실 스크린 뒷쪽
지정된 장소에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구류: 색연필,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문구용가위, 풀, 볼펜, 퍼머넌트마커,
줄있는공책 (얇은 싸이펜, 샤프펜슬 제외)
- 주방용품: 스푼, 플라스틱접시, 후라이팬,
주방용칼, 작은보온병, 작은물병
(일회용품, 유리나 사기용품 제외)
- 장난감: 축구/배구공, 작은 놀이용공,
배구네트, 장난감 (크기가 작은 장난감 제외)
- 의류, 신발 여름용옷, 쪼리, 장화, 양말,
레깅스, 사이즈95이상 셔츠 (밝은색제외)
- 생필품: 수건, 따뜻한 얇은이불, 손전등,
부채, 칫솔, 가방(백팩이나 에코백)
(핸드백제외)
- 문의: 이정석 집사 021 868 075

교우동정

- 출생
신동관 송초롱 가정이 지난 5월 23일
득남(신테오) 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A E/G# F#m7/E D E A Asus4 A

주여—우린연약합—니 다 우린 오늘을—힘겨—워—합니—다— 주뜻
 주여—우린넘어집—니 다 오늘 하루—또살—수—합니—다— 주의

5 D E C#m7 F#m7 Bm7 E I.A D/E

이루며—살기—엔— 부족합—니 다 우린— 우린연약합—니 다
 긍휼을—구하—는— 죄인입—니 다 우린— 주만바라봄—니

9 2.A D/E A E/G# F#m7 /E Bm7 /A G Esus4 E7

다 한 없 는 주 님의— 은혜 — 온 세상— 위에 — 넘침— 니다 — 가

14 Em6 A D A/C# Bm7 Esus4 E7

릴 수 없 는 주— 영 — 광 — 온 땅 위 에 충—만 합 — — 니다 — 주

18 A E/G# F#m7 /E Bm7 /A G Esus4 E7

님 만 이 길— 오니 — 우 린그— 길따 — 라 감— 니다 — 그

22 Em6 A D A/C# Bm7 D/E A

날 에 우 린 이—루 — 실 — 주 는 완—전 합 니 — 다 —

목장소식

초원	목장이름	목자	연락처	초원	목장이름	목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댐	김승기	21575899	리	37 BASIC	박태성	278888161
	2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8 노스쇼어	이승훈	21599891
	3 가나	김택진	2102339858		39 통가	정문주	278888989
	4 쓸라 피데	허광옥	274832352		40 벨엘	신규식	21417756
	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6 이리안자아쁘데나	채금희	21569056		42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약속	7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참빛	43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8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4 Acts 29	양은창	21538709
	9 베티아	이재용	210480543		45 선한사마리아인	권효남	212627967
	10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46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11 일본	손동옥	212043531		47 섬나 호치민	나중엽	21386202
	1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48 가버나움	이석은	211821073
성결	13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온유	49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14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50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15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1 이레	이의섭	210497628
	16 감비아	김규영	22029838		52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17 러셀	안응진	211821185		53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18 과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54 수단로코스	김성국	272714894
소망	19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무지개	55 미래세대 디딤돌	장만현	210702928
	20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56 윈난	채한승	2102879202
	21 옐림	이명준	272970117		57 LA	정두련	211365151
	22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58 다비다	전복순	2102251782
	23 블라디보스톡	임종현	211989504		5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2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60 보아스	김용태	274711446
빛	25 임마누엘싱가폴	최재인	21524896	임마누엘	61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26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62 헤럴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27 말레이 미리	임종인	275805048		63 Central 오uckland	임동민	2040026400
	28 가데스바네아	허건희	2102308976		64 드레스덴	김지석	210302829
	29 엘번	지영철	2102750720		65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30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6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31 에벤에셀	이민수	21810072	민음	67 네랄 은혜	조영아	212158936
	32 서울 빛의마을	전은호	2041616256		68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33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9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34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70 아베스	김성민	212595119
	35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71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36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72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참빛 온유 무지개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약속 성결		안현수	4 교구	임마누엘 믿음		김진영
2 교구	소망 빛 우리		이성민				
				73	그리스도의 향기 Lexall		심정임



선악과 (창 3:5-10)

인간은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음 받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었고,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나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평소 내 모습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과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완전하고, 약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을까요?
'사랑'과 연관해서 나누어 봅시다. [참고] 요일4:16 ; 고전13:1-13

3.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 선악과(울법)가 필요할까요? 아래 주제문장 속 괄호를 채워가며 묵상해 봅시다.

* 선악과(울법)는 죄인을 비추는 ()이다. [참고] 창3:7 ; 롬3:20

4. 내 삶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는 선악과는 무엇 또는 누구 입니까?

5.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방법과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열어 놓으신 방법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창3:22-24 ; 마27:45-51

<p>수단</p>	<p>3년 이상 지속된 내전으로 총체적 비극 직면</p>
<p>수단은 1000일 이상 지속되는 내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난민(피난민)이 발생했고, 가장 심각한 기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폭력과 학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구의 40%가 넘는 20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여러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약품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이 멈춘 상태입니다. 13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으며 전 세계 최대의 피난민 국가가 되었습니다.</p> <p>하나님, 내전의 양측 핵심지도부의 굳은 고집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와 사랑으로 기적처럼 녹아지게 하소서. 무고한 백성들이 평화협정의 소식을 하루 빨리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이 속히 전달되도록 하늘의 통로를 열어 주소서. 특히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소서. 집을 잃고 길가에 내몰린 많은 피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트라우마를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소서.</p>	
<p>한국</p>	<p>선거 이후 사회적 통합과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p>
<p>지난 6월 3일, 향후 4년간 우리 지역 사회의 살림과 발전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지방단체장과 지방위원, 교육감 등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민심의 목소리를 풀어가야 할 출발점에서 있는 이 시점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고 드러난 여러 갈등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p> <p>하나님,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출된 모든 공직자가 교만하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써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소서. 선거 과정의 경쟁과 대립으로 인한 상처와 분열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먼저 화평의 도구가 되어 지역 사회의 화합을 위해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단] 오랜 내전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단 땅에 하루속히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시급한 도움의 손길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 [한국] 지방선거를 마친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오직 공의와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겨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 [교회] 질병을 마주하여 고통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한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허락 하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